

동남아에 광주仁術 심기

광주일보·(사)희망나무·광주시 등 공동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의료환경이 열악한 동남아 국가에 '광주 인술(仁術)'을 심어 나눔과 연대·대동의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가칭)가 오는 23일 첫 삼을 끈다.

광주일보와 아시아지원 봉사단체인 (사)희망나무,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지역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광주 진료소' 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타케오(Takeo)



시 인근 바티(Bati)지역에 제1호 진료소 기공식을 연다.

'1호 광주진료소' 캄보디아 오지에 23일 첫 삼

이 진료소는 '캄보디아-광주 친선 재단' 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 면적 330㎡(100평)에 1층짜리 건물 2동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진료소 개설에 필요한 건축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은 광주시와 진료소 개설 추진위원회가 부담하

고 했으며, 전기·수도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타케오 주정부가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기공식에는 광주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5단체가 참여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도 벌인다. 진료소가 준공되면 현지 의사 1명

과 간호사 1명이 상주하게 되며, 광주 등 한국 의료진이 매월 한 차례씩 진료소를 정기 방문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수술 등의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광주진료소 추진위원회는 캄보디아 1호 진료소 개설이 마무리되면 미얀마와 필리핀 등에 2, 3호 진료소

개설도 계획 중이다. 광주진료소는 치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향후 다문화 시대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5·18 민주화운동의 세계화와 인권도시 '광주'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후원·기부로 탄생한 소록도 벽화

소록도의 슬픈 역사와 희망을 담은 웅벽 벽화 '염원(念願)·소록(小鹿)의 꿈' 길이 110m, 높이 3.05m 제막식이 지난 30일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렸다. 남포미술관(관장 박형수)이 기획·주관한 이 벽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1 예술나무 키우기-크리우딩펀딩 프로젝트'에 선정, 국민모금과 기업 후원금, 박대조 작가 등 작가 29명의 재능기부로 탄생했다. /소록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6강-손병두 이사장

"대한민국 위상 맞는 선진국민이 됩시다"

"지난 30년간 경제성장 60배를 이룬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지난 30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의 여섯 번째 강연자로 나선 손병두(72)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선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자'라는 주제로 세계 속 한국의 위상과 우리나라가 이룬 기적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지난 뒤 삼성꿈장학재단 외에도 KBS 이사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활동중인 국내 대표 경제인이다.

손 이사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선진국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삼성그룹에서 보낸 기업인의 삶, 이후 경제인의 삶 등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인생역정을 풀어내며 일류국가의 국민이 가져야 할 덕목과 개인이 키워야 할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일곱번째 특강은 장일범(45) 헤이스 마리아 칼라스를 음악감독을 초청해 오는 7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호텔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공짜표 요구 그만... '공연 불모지' 오명 벗자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3> 낮 뜨거운 관람문화

지난해 전국연극제에서 있었던 낮 뜨거운 이야기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충북 대표팀의 공연 '맹진사댁 경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 느닷없이 어디선가 우렁찬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쿠우스XXXX 차주 차 빼요" 공연장 문을 지키던 진행요원들이 검표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돌발상황이었다. <관련기사 3면> 관객들은 처음엔 연극의 한 대목인 줄 알았다. 무대에 선 배우들 역시

'에드립'으로 커버해 보려했지만 하필 연극이 시대극이라 배우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외지 연극인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모처럼 굿직한 클래식 연주회가 열렸다.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친구를 공연이었다. 김정원씨는 공연 전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광주를 공연장소로 선정한 데 대해 격정

이 많다고 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평정한 연주자들이 참여하다 보니 스케줄상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공연을 진행할 지역으로 딱 한곳을 골라야 했다. 솔직히 광주는 클래식 공연계에서 공연이 가장 안되는 곳으로 꼽혀 지방 투어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통 대구나 부산 공연을 선호하는데, 이번에 개인적인 인연으로 광주를 택했는데 기획사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광주를 공연장소로 선정한 데 대해 격정

고,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비어 있는 객석을 보며 아쉬워했다. 다시 김씨가 '친구들'과 함께 광주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시민들의 문화 향유 태도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광주는 오래전부터 클래식 공연이 안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획사들이 건너뛰는 지역이 돼버렸다. 연극, 무용 등 타 장르도 마찬가지다. 뮤지컬 등 상업성이 아주 강한 작품이 아니면 정음성극제음악제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서나 간신히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람 태도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관객들의 태도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성인 관객들 중에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초대권 남발도 문제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 축제'의 초대권 관객은 30%에 달했다. 특히 전석 유료로 판매됐던 '백조의 호수'를 제외하면, 초대권 관객은 43%에 이른다. 또 지난해 광주문예회관 전체 관람객 중 무료 관객도 33%를 기록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근로자의 날 휴무...내일 신문 쉽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력 소비가 매우 높으며, 불필요한 전력 소비는 연료 수입을 증가시키며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전기절약,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국민 경제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5.3%로, OECD 주요국가인 일본 0.2%, 독일 0.6%, 미국 0.7%, 영국 0.1%에 등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 생산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급증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